

윤석열 독주나 홍준표·유승민 추격이나

국민의힘 경선버스 오늘 출발 30·31일 공식후보 등록 11월 5일 최종후보 선출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이 본격화한다. 국민의힘은 오는 30일부터 이틀간 공식후보 등록을 받고, 11월 5일 최종후보를 선출한다. 다음달 15일 1차 예비경선(컷오프)에서 8명으로 압축하고, 10월 8일 2차 컷오프에서 4명만 남게 된다. 최종후보는 11월 5일 전당대회에서 당원투표와 여론조사 50%씩의 비율로 선출된다.

현재로서는, 선두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세론에 맞서 홍준표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 최재형 전 감사원장 등이 추격하는 구도다.

윤석열 대선캠프는 초반부터 반전의 여지를 두지 않을 태세다.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이 주춤했지만, 공약 준비와 맞물려 공개 행보를 줄인 데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29일 부동산 해법을 중심으로 첫 공약 발표에 나선 게 그 신호탄이다.

캠프 관계자는 통화에서 “홍 의원이나 유 전 의원은 이미 대선에 출마했고 당 대표까지 지내 더는 새롭지 않은 인물”이라며 “공약 발표 등으로 공개 행보를 본격화하고 언론 노출을 늘리면, 차이는 금세 벌어질 것”이라고 낙관했다.

추격자들은 역전을 자신하고 있다. 무엇보다 홍준표 의원의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 지난 24일 SNS에선 추석 연휴를 ‘골든 크로스’의 목표 시점으로 못 박았다.

리얼미터가 성인 2015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지난 26일 발표(오마이뉴스 의뢰·표본오차 95%±2.2%P)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홍 의원은 범보수 대권주자 적합도에서 20.2%를 기록했다.

윤 전 총장이 53.3%로 여전히 선두였지만 정치

권은 홍 의원의 가파른 상승세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홍 의원은 2030세대 표심 확보를 위해 ‘무야홍’(무조건 야당 후보는 홍준표), ‘돌돌홍홍’(돌고 돌아 홍준표) 등 신조어를 내세워 끈대 이미지 탈피도 시도하고 있다. 캠프 관계자는 “서울시장 재보선, 당 대표 경선을 보면 2030에서의 돌풍이 결국 승리를 견인했다”며 2030 지지율에서 앞선 홍 의원의 역전을 자신했다.

유 전 의원 역시 토론·검증이 본격화하는 9~10월 이후로 선두로 치고 올라서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 특히 지난 27일 공식 대선 출마 선언 직후에는 “홍준표가 윤석열을 잡고, 유승민이 홍준표를 잡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힌 바 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나 원희룡 전 제주지사도 당 공식 행사와 후보자 토론 등에서 존재감을 발산하면 대역전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립뉴스

국민의힘 최재형 전 감사원장 국립 5·18민주묘지 참배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지난 28일 비공개 일정으로 광주를 찾아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했다.

최 전 원장은 이날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5·18 묘지를 방문해 분향·헌화한 뒤 무릎을 꿇고 묵념했다. 최 전 원장의 광주 방문과 5·18묘지 참배는 지난 4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뒤 처음이다.

최 전 원장은 5·18묘지에서 만난 연합뉴스 기자에게 “본격적인 경선 시작을 앞두고 5월 광주의 정신을 한 번 더 마음에 새기며 국민 통합의 길을 모색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 개인적으로 왔다”고 말했다. 5·18묘지 참배 소회로는 “5월 광주의 정신은 우리 민주주의의 토양이 됐다”며 “새로 더 민주주의의 꽃을 피우는 일은 우리들이 해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최 전 원장은 5·18묘지와 인접한 망월동 5·18구묘역(민족민주열사묘역)까지 도보로 이동해 비공개 참배를 이어갔다. 이날 최 전 원장의 5·18묘지 참배는 캠프 관계자 3명만 동행했다. /연립뉴스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왼쪽)이 28일 오전 비공개 일정으로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를 찾아 열사 묘소를 참배하고 있다. 최 전 원장 오른쪽은 안내를 맡은 김범태 5·18민주묘지 관리소장. /연립뉴스

“5년내 30만호 청년 원가 주택 공급”

윤석열 첫 정책 공약 발표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29일 ‘청년 원가 주택’과 ‘역세권 첫집 주택’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 대선출마 선언 후 첫 정책 공약 발표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택 정책의 최우선 목표를 ‘모든 국민들의 주거 수준 향상 실현’에 두려고 한다”고 밝혔다.

먼저 윤 전 총장은 5년 이내에 30만 호의 청년 원가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주택은 무주택 청년 가구가 시세보다 낮은 원가로 주택을 분양받고, 5년 이상 거주 후에는 국가에 매각해 차익의 70%까지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개념이다.

공급 대상은 20~30대를 위주로 하되 소득과 재산이 적고 장기 무주택에 자녀가 있으면 가점을 부여하고,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이면 다자녀 주택인 40~50대도 포함할 계획이다.

역세권 첫집 주택은 5년간 20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역세권에 살고 싶어하는 무주택 가구를 위해 공공 분양 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하겠다는 공약이다. 역세권 민간 재건축 단지의 용적률을 300%에서 500%로 높여주고, 이 중 50%를 공공 기부채납 받는 방식으로 공공 분양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아이디어다. 윤 전 총장은 5년 동안 전국 250만 호 이상, 수도권 130만 호 이상 신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큰 틀의 주택 공급 청사진도 제시했다. 이 밖에 신혼부부와 청년층의 주택담보대출 비율(LTV)을 80%로 인상하고, 인센티브와 의무 부과를 통해 민간 임대주택사업도 정상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연립뉴스

“불법 사찰·정치개입 반복 않겠다”

박지원 국정원장 대국민 사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과거 정권에서 국정원이 저지른 불법사찰과 정치개입에 대해 대국민 사과했다.

박 원장은 지난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저와 국정원 전 직원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엄중한 명령을 받들어 과거 국정원의 불법사찰과 정치개입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며 사과문을 발표했다.

그의 대국민 사과는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국정원 불법사찰 재발 방지 결의안 내용을 이행하는 차원이다. 이 결의안에는 “국정원장이 재발 방지와 국민사찰의 완전 종식을 선언하고 해당 사찰 피해자·단체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박 원장은 “과거 국정원의 불법사찰과 정치개입은 청와대의 부당한 지시는 물론 국정원 지휘체계에 따라 조직적으로 실행됐다”며 “정·관계, 학계 인

사와 관련 단체, 그리고 그 가족과 단체 회원까지 사찰하고 탄압했다”고 반성했다.

이율리 문화·예술·종교계 인사들의 동향 수집, 연예인 블랙리스트 작성, 친정부 세력 확보를 위한 특정 단체·사업에 대한 금전 지원 등 과거 국정원이 벌인 불법사찰과 정치개입 사례를 열거하며 “국가정보기관을 ‘정권 보좌기관’으로 오인하고 정권 위에 국가와 국민이 있다는 것을 망각했다”고 말했다.

박 원장은 그러나 “문재인 정부 들어 (국정원에 대한) 정권의 부당한 지시는 없었고 국정원의 정치개입과 불법사찰은 없다고 단언코 말씀드린다”며 “비야흐로 정치의 계절이다. 저와 국정원 전 직원은 철저한 정치 거리를 실천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한 “한반도 평화를 지원하고, 대공·방첩 사건도 잘 처리하고, 산업기술 유출이나 사이버 해킹, 테러 등 국익·안보·안전·민생에 기여하는 서비스 기관으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연립뉴스

“34년 묵은 낡은 양당체제 불판 갈아야”

심상정 정의당 의원 대선 출마

정의당 심상정(사진) 의원이 29일 “이번 대선은 거대양당의 승자독식 정치를 종식하는 선거가 돼야 한다”며 내년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번이 네 번째 대선 도전이다.

심 의원은 이날 온라인으로 진행된 출마 선언식에서 “춥쌀 정부에 대한 실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진보정당의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드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지금까지 양당정치는 서로 격렬하기만 할 뿐, 민생개혁에는 철저히 무능했다. 산업화 정당, 민주화 정당에는 이미 수교비 주실 만큼 다 주셨다”며 “34년 묵은 낡은 양당 체제의 불판을 갈아야 한다. 정권이 아니라 정치를 교체해달라”고 호소했다.

공약으로는 ▲단결권을 비롯한 신노동 3권 보장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 추진 ▲토지초과이득세 추진 ▲평생울타리소득체계 구축 등을 내걸었다.

심 의원은 지난 2007년 민주노동당 경선에서는



권영길 의원에 밀렸고, 2012년에는 진보정의당 후보로 출마했으나 문재인 당시 민주당 후보를 공식 지지하며 사퇴했다. 2017년에는 정의당 후보로 선거를 완주했다.

한편, 정의당은 오는 10월 6일 대선후보를 확정할 방침이다. 앞서 이정미 전 대표가 대선 출마를 선언했고, 황승식 경기도당위원장도 출마 선언을 준비 중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호남출신 국민의힘 대권주자 장성민 광주 방문

5·18 묘지 참배 호남 표심잡기

호남 출신의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장성민 전 의원이 대선 예비후보 등록 이후 처음으로 지난 28일 광주를 찾았다.

국민의정부 시절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은 지난 장 전 의원은 이날 남광주시장 상인들을 만나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들은 뒤 국립 5·18 묘지를

참배하는 등 호남에서 본격적인 표심잡기에 나섰다.

장 전 의원은 “광주 전남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글로벌 중심도시로 천지개벽해야 한다”며 “제가 대통령이 되면 이곳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성장 동력을 이끄는 산업단지로 바뀌게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오피스텔, 신축부지

타 용도 변경 가능, 회사 사정상 급매

- ▶ **대인동 롯데백화점 옆**
대지 515㎡(구 156형)
지하 1층, 지상 9층
46㎡(구 14형), 64호실
매매 - 18억5천만원
- ▶ **신안동 엄마요양병원 옆**
대지 582㎡(구 176형)
지하 1층, 지상 10층
49㎡(구 15형), 72호실
매매 - 21억원

중개환영. 010-3605-5000

근린상가, 월세 660만원

- ▶ **광양시 중동 해비치 호텔 옆**
- ▶ 6층 건물 중 4층 전체
- ▶ 분양평수 240평, 전용 147평
- ▶ **현재, 메리츠화재 임대 중**
- ▶ 매매 - 14억(대출 9억 포함)

중개환영. 010-3605-5000